

◆ '22년 해외건설 주요 동향 등을 공유하고, 각 기업별 애로사항 및 지원사업 건의사항 등 논의결과를 보고 드림.

엔지니어링(1.27) : 9개사	시공기업(1.27) : 5개사	신재생에너지 분야(1.27) : 7개사
건화, 도화, 평화, 유신, 삼안, 수성, 한미글로벌, 한국종합기술, 희림건축	쌍용, 계룡, 일성건설, 대원, 동아지질	LGCNS, 도화, 벽산, 건화, 유신, 한화에너지, 명지대

* (참석자) 해외건설정책과장(주재), 담당 사무관, 해건협, KIND

□ 주요 논의내용

① 新지원사업 의견 수렴

< 정보 지원 >

- (정보제공) 해외건설에 필요한 심층정보 제공 확대
 - (정세정보) 최근 악화되는 국제정세와 국가 리스크 대응을 위해 해외건설에 필요한 국별 정세분석 제공(도화)
 - (설계기준) 국가별 설계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삼안)
 - (단가정보) 국내기관 및 업계에서 조사한 현지 사업비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하거나 오류가 많아 정부에서 각국의 공사비 등 사업비 산정 단가 등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대원)
 - (기후인문정보) 친환경 및 개발사업 분야에 중요한 현지 기후정보, 주거환경 등 인문정보 제공(명지대)
- (정보공유) 현지정부의 정책사업 타당성보고서 등 확보 어려워, 아국 공관 및 기관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의 업계 공유 강화(유신)

< PPP사업 지원 >

- (정부역할) PPP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업연결 등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건화)

- (PPP법령) 각국의 PPP법과 국내법의 비교 정리 필요(수성)
* KIND가 조사한 각국 PPP법령 관련 설명회 개최 추진

〈 기타 지원 〉

- (발주처 파견지원) 저개발국가 발주처가 사업의 기획, 정책수립 등에 기업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직원파견 지원(한국종합기술)
- (엔지니어 육성) 젊은 엔지니어 인력 육성을 위해 직원교육 및 해외 연수 등 지원 필요(삼안)

② 사업 참여 애로 및 건의사항

- (과당경쟁) 구속성 EDCF 사업 입찰에 아국기업간 과당경쟁 및 결과에 대한 반발 등 만연(평화)
- (비구속성 EDCF) 비구속성 사업 증가시 현지기업과의 경쟁으로 아국기업 수주 감소 불가피, 현지기업과의 JV 강요 등 부작용 예상 (일성,계룡)
- (EDCF 입찰 공고기간)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절차 소요기간에 비해 EDCF 사업 공고기간이 짧아 입찰참여가 어려운 상황, EDCF 입찰 공고기간 연장 필요(계룡)
* (출입국 절차) 약 2개월 (EDCF공고기간) 1.5개월
- (EDCF 지급통화) EDCF 사업이 원화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심한 경우 큰 환차손 발생, 개선 필요(계룡)
* ADB 및 WB 등은 통상 3 종류의 통화를 선택하여 계약 가능
- (EDCF 기업 추천) 협회가 추천하는 EDCF 롱리스트 기업에 대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탈락사유 등 공개 필요(수성)
- (탄소보험 등) 저개발국 소규모 탄소배출권 사업의 경우 탄소보험 등 수출입보험의 이용이 어려워 대책 필요(건화)

참고

간담회 참석자(업계)

구 분	기 관 명	직 위	성 명
ENG 기업 (9)	건화	전무	김용우
	도화ENG	전무	이석호
	평화ENG	상무	정성훈
	유신	부사장	김경호
	삼안	이사	윤주철
	수성ENG	전무	김석수
	한미글로벌	이사	정찬호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박민수
	희림건축	부사장	노진형
시공 기업 (5)	쌍용건설	차장	김유진
	계룡건설	부장	송영학
	일성건설	부장	조장호
	대원	부장	구본규
	동아지질	상무	정선태
신재생 에너지 기업 (7)	LG CNS	팀장	오기도
	도화ENG	상무	김현덕
	건화	부사장	강호정
	벽산ENG	이사	최용석
	유신	부사장	강태우
	한화에너지	전무	윤영진
	명지대	센터장	이명주